

## 국제 로잔 운동과 한국 사회선교운동

구교형 (성서한국 이사장)

### 들어가는 말: 로잔 운동,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1974년 6월 스위스 로잔에서 첫 대회(세계 복음화 국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된 국제로잔운동이 2024년 9월 인천에서 4차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50년을 맞게 된다. 로잔대회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수많은 국제 선교운동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로잔은 그것들과 무엇이 다르기에 우리는 지금도 50주년을 기념하고, 그 이름을 확인하는가? ‘로잔 운동은 도대체 무엇이 다른가?’ (옳고 그름이나 우열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질문을 기억해 달라.

로잔 운동을 한마디로 하자면, ‘온 교회(the whole church)가 온전한 복음(the whole gospel)을 온 세계에(the whole world)!’에 전하자는 것이다. 눈에 띄는 것은 ‘whole(총체적, 온전한)’이라는 형용사가 세 번이나 반복된다는 것이다. 모든 게 그렇듯이 자꾸 반복하는 것에 그것의 특징, 그것의 정체성이 있다. 첫 질문을 받아 대답하자면, 로잔의 정체성, 로잔의 차별성, 로잔의 탁월성은 바로 ‘whole(총체적, 온전한)’에 있다는 말이다.

로잔 운동이 총체성을 강조하는 데는 깊은 사연이 있다. 그 이전까지 세계교회의 복음 운동, 선교 운동은 계속 ‘치우쳤다’, 즉 ‘총체적이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복음과 선교의 총체성(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이 정말 필요하다면 성경적 근거부터 확인해 봐야 한다. 누구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사역 자체가 총체적 복음과 총체적 선교였다. 신약 전체나 복음서 전체를 살펴볼 것도 없다. 예수님의 30년 생애와 사역 전체를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 준 마태복음 9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 갈 길 잃은 양처럼 인생을 기진맥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36절)

그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 예수님이 하신 복음(선교) 사역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35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복음 선포, 양육과 훈련, 세상 구제와 섬김이 모두 주님의 복음(선교) 사역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우리는 이 사실을 네 복음서 모두에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는 더하거나 뺄 것 없이 주님의 그 복음, 주님의 그 선교 사역을 우리의 복음, 우리의 선교적 사명으로 삼아야 한다. 그게 총체적 복음, 총체적 선교이다. 좁은 의미의 해외선교, 직업선교사만의 활동이라면 굳이 로잔의 이름과 정신을 꺼내 들며 50년이나 기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2천 년 기독교 역사, 심지어 로잔 이후 50년조차 여전히 복음도, 선교도 총체성을 품기보다는 항상 편향성(편중성)에서 멈췄다. 로잔은 과연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인물들이 어떤 생각으로 시작한 운동인지 살피는 것으로부터 차별성을 이야기해 보자.

## 1. 20세기 세계의 위기 속에 시작한 국제 로잔운동

19세기~20세기 초까지의 역사가 우리에게는 식민화, 제국주의시대로 경험되지만, 서구인들에게는 선진화, 문명화의 시대로 기억되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 대중 민주주의를 앞세워 인류의 무한성장이 가능한 현세적 유토피아를 만들어간다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여기에 더해 복음화와 세계 선교도 활발하게 일어났으니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는 낙관주의가 꽃피었다.

그러나 대망의 20세기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모든 낙관주의와 무한 진보사상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바로 두 번의 처참한 세계대전의 경험 때문이다. 1차 세계대전(1914~18년/전사자 900만 명, 민간인 사망자 600만 명 등 1,500만 명 추산, 부상자 2,700만 명)은 인간성과 인류문명에 대한 심각한 회의와 자책을 불러일으켰다. 사랑의 기독교 신앙과 선진문명의 확산은 고사하고 같은 기독교권 국가(개신교·가톨릭·정교회)끼리 세계 식민지 쟁탈전을 벌인 끝의 참화였기 때문에 충격은 더욱 컸다. 깊은 반성과 국제평화운동이 일어나는 등 대책도 뒤따랐지만, 20여 년 만에 더 큰 규모의 두 번째 세계대전(1939~45년/사망자 공식 통계 5,646만 명~비공식적으로 7,300만 명 추산)이 일어난다.

그러나 선진문명과 기독교 신앙 전파의 명분 아래 일어난 서구의 팽창이 전 세계에 몰고 온 쓴 뿌리는 전쟁만이 아니었다. 서구 기독교 국가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식민지 곳곳에 종족, 역사, 종교, 지역 기반 등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편익에 따라 멋대로 나라를 자르고 붙여 분할통치 함으로써 지금까지도 끊임없는 계속되는 내전과 분쟁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지켜보며 서구 지성과 기독교계의 충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다. 세계 선교와 복음화에 깊은 반성과 고뇌에 빠지는 게 당연했다. 그 결과, 세계교회와 선교계도 가난, 전쟁, 인권, 차별 등 인간화 과제와 함께 가지 않는 복음화 운동은 반쪽일 뿐 아니라 왜곡임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변화된 세계 상황에서 인간화 과제까지 끌어안은 포괄적 선교 운동을 세계교회가 함께 해 나가자는 취지로 1948년 출범한 게 바로 세계교회협의회(WCC) 운동이다.

그러나 WCC 운동은 출범과 더불어 많은 논란에 휩싸였다.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선교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서 일으키시는 모든 사건이라는 개념)의 강조와 ‘선교 모라토리엄’(Moratorium/선교에 하나님의 주도성을 인정하여 당분간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자는 주장) 등이 이어지면서 전통적 기독교회의 큰 반발을 샀다. 특히 1930년대부터 자유주의신학에 대응하여 별도의 움직임을 가져왔던 미국 근본주의 기독교의 반발이 더 커졌다. 둘 사이의 대립과 갈등은 화해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새로운 선교 운동이 바로 로잔 운동이다. ‘역사적 신앙고백과 선교를 존중하면서도’(전통적), ‘끊임없이 변하는 시대와 상황, 인간적 과제도 소홀히 하지 않는’(시대적), 총체적 기독교를 믿는 이들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 복음주의다. 바로 이들이 1974년 스위스 로잔에 모여 국제 로잔 운동을 시작한 것이다. 빌리 그레함을 중심으로 한 미국 대중적 기독교, 존 스토틀를 위시한 영국 지성적 기독교, 르네 빠띠야 등 남미 사회적 제자도 그룹 등이 함께 만나 로잔 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 2. 로잔 운동의 한국수용 과정과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

한국교회는 1974년 로잔 첫 대회부터 조종남·조동진·김옥길 등 대표들을 보냈다. 그러나 같은 해 8월, 여의도에서 열린 ‘엑스플로 74 대회’가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폭발적인 성과를 거둔 반면, 로잔대회는 유신독재가 절정이던 당시 참석자들조차 이를 자세히 소개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되었다. 로잔 소식은 1980년대에 이르러서야 대회 참가자 중 하나인 조종남 박사와 영국에서 공부하던 이승장 목사 등에 의해 번역·소개됨으로써 한국에도 비로소 알려지게 됐다. 그러다 보

나 50년이 지나도록 한국에서 로잔 운동은 주류 한국교회보다 학원 선교계 및 개혁적 복음주의 운동 등 수용 폭이 좁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간접적, 우회적, 사후적 수용과정이 오히려 뜻밖의 결과를 낳았다. 로잔운동과 언약이 들고 돌아 어렵사리 한국에 수용되던 1980년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이 이 문서의 존재감을 더욱 증폭시켰다. 1980년 광주학살을 배경으로 집권한 신군부 정권의 독재가 계속되면서 재야 지식인, 학생, 노동자 등 많은 이들의 희생과 저항이 잇따랐다. 반면 이러한 상황과는 아랑곳없이 한국교회는 196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젊은이들로 넘쳐났다. 당연히 같은 시대를 사는 교회의 젊은이들도 시대적 아픔과 고민을 공유했다. 소위 진보기독교회는 이미 해방신학, 민중신학 등을 통해 시대 상황을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실천할 기반이 있었지만, 다수의 보수교회 젊은이들은 그렇지 못했다.

당시 대다수 주류 보수교회는 정교분리를 내세워 젊은이들의 고민을 무시하거나 잠재우려 했고 때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믿음 없는 행동으로 꾸짖기도 했다. 그런 상황에서 로잔 언약이 소개된 것이다. 그 운동은 빌리 그래함을 비롯해 존 스토틀 등 보수 교회도 인정하는 저명한 국제 기독교 지도자들이 함께 했고, 제5항에는 버젓이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와서 보면 모두 15개 항목 중 겨우 하나에 불과한 아주 원론적이고 진부하기까지 한 내용처럼 보인다. 그러나 당시 시대 상황에 분노와 부채감으로 성경적, 신학적 정당성에 목말라하던 젊은이들에게는 생수처럼 느껴졌다. 표현이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복음주의 문서에 그런 항목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로잔 언약을 직접 봤든 보지 못했든, 이 문서의 소문은 소리 없이, 그러나 빠르게 퍼져나갔다. 당시 창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잡지 <복음과 상황>(1991년)도 몇 번에 걸쳐 로잔 언약은 물론 비슷한 성격의 문서들을 부록으로 연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로잔의 주역이며 결출한 복음주의 운동가인 존 스토틀를 지도자로 둔 IVF 등 대학생 선교단체와 1980년대 이후 강남 중산층 목회에 성공한 주요 대형교회 청년부, 대학부, 그리고 자생적 모임들에서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새로운 사회선교운동이 자연스럽게 모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7년은 역사에 길이 남을 해이다.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으로 촉발된 민주화 대투쟁의 성과로 그토록 그리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어렵사리 쟁취한 합법적 정권 쟁취의 기회를 부정선거로 인해 빼앗기지 않기 위한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함께 처음 활동 조직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공정선거감시와 민주정부수립을 위한 복음주의청년학생협의회'(복협)다. 대선 결과 군부 출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었지만,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1988년 다시 '복음주의청년연합'(복청)을 만들어 연합활동을 모색했고, 1991년 3월 상설조직인 '복음주의청년학생연합'(복청학련)을 탄생시켰다. 이 활동에 참여했던 주요 그룹과 인물들은 남서울교회(홍정길)와 청년대학부(강경민), 사랑의 교회(옥한흠)와 청년대학부(박성남), 구로희년교회와 희년선교회(이문식), 할렐루야교회 대학부(이만열, 윤환철), IVF와 고지한, ESW와 이승장, 김희권과 김호열, 겨자씨형제단(박철수, 구교형), 서울대기독교학생회와 기문연(최은석, 이종철, 박정수, 김근주, 오동성, 박문재, 강문대), 외대 기사연(김기현) 등이다. 그러나 몇 년에 걸쳐 의욕적으로 활동한 이들은 역량 미숙 등 여러 문제가 겹쳐 잡지 '복음과 상황'을 창간하는 것으로 서둘러 종지부를 찍게 된다. 비록 연합적 조직운동은 중단되었지만, 상당수는 다양한 교회, 단체 등의 활동을 기반으로 그 뒤 10~30년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기초를 놓았다.

특히 2000년대를 전후하여 시민운동 성격의 다양한 부문 단체가 창립되며 전성기를 맞았다. 헨리조지협회(현 희년함께 전신/1984년),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경제정의실천연합(이상 1989년), 남

북나눔운동(1993년), 좋은교사(1995년), 새벽이슬(1997년), 기독교법률가회(CLF/1999년) 뉴스앤조이, 공의정치포럼(이상 2000년), 교회개혁실천연대(2002년), 청어람 아카데미(2005년), 평화누리(2007년), 하나누리(2007년),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2010년), 평통연대(2010년),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2014년), 기독교반성폭력센터(2018년) 등 다양하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 정신으로 사회 각 영역을 개혁하려는 목적의 개별운동이 활발해지자 복청학련 이후 중단되었던 복음주의 사회선교 연합운동을 재건하려는 노력이 자연스럽게 일어났다. 이들은 일제 강점기 선각자 김교신 선생의 '성서 조선'을 뒤따르는 마음을 담아 '성서한국'이라는 이름으로 2002년 제1회 성서한국 수련회(할렐루야교회)를 가졌고, 2003년 성서한국포럼을 거쳐, 1988년부터 시작된 선교한국운동 형식을 채용하여 2005년 성서한국 본부를 출범함과 동시에 제1회 성서한국대회(대전 침신대)를 시작했다.

이후 성서한국은 전국대회와 지역대회 개최, 사회선교현장 적극 참여, 사회선교단체 연대기반 마련에 힘써왔다. 또, 예큐메니칼 진영(KNCC, 목정평, 기사연, 예수살기, 고난함께 등)과 함께 연대하며 복음주의 이름으로 시대적 비극과 위기의 현장에 참여하는 기독교사회선교운동의 한 축을 형성했다.

#### **중간평가: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

1974년 시작해 내년 50주년을 맞는 국제로잔운동은 더 넓은 계층의, 더 다양한 개념과 방법으로, 폭넓은 복음주의 선교운동을 제안해 왔다. 그러나 외부 관찰자의 입장에서 거칠게 평가한다면, 여전히 원론적인 선언에 머무는 느낌이고, 21세기 변화된 시대의 선교과제 창출에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며, 1세대 지도자 퇴장 이후 로잔 운동의 비전과 중심인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 특히 지난 50년 동안 국제로잔운동의 성과가 각국과 다양한 사회에 어떻게 수용되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앞서 살펴본 한국에서 로잔 운동의 간접적, 우회적, 사후적 수용 형태는 오히려 매우 독창적이고, 뚜렷한 특징을 가졌다고 자평할 수 있다. 한국복음주의연구소장 이강일 목사는 이를 한국(K)형 복음주의(로잔운동)라고까지 부르는데 매우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왜 그런가? 앞서 말했듯이 로잔운동의 한국 수용과정은 대회 참석자들의 자발적 운동도, 대다수 주류교회에도 알려지지 않은 가운데서 1990년대 이후 시대적 요청에 목말랐던 개인 및 소수 집단에 의해 한국화 하였을 뿐 아니라 30년 동안 다양한 과제와 영역에 꾸준히 뿌리내렸기 때문이다. 그 실례를 제시한다. 비교적 최근인 2014년 창립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의 정관을 보자.

『제2조 (목적) 본회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 복음에 바탕을 둔 신앙과 삶을 정립하여, 한국교회와 사회의 총체적 변혁을 위한 연합과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신앙고백) 우리는 1974년 7월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복음화국제회의'에서 채택한 '로잔 언약(The Lausanne Covenant)'의 정신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이를 계승 발전시킨 1989년 '마닐라 선언문(The Manila Manifesto)'의 신앙적 고백(affirmations) 21개 항목을 한 마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우리는 지난 2011년 작성된 '케이프타운 헌신(The Capetown Commitment)'의 10개조 신앙 서약과 행동을 위한 요청을 기꺼운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며, 이를 한국적 상황 속에서 실현할 것을 다짐한다.』

그 결과, 한국 복음주의에 새로운 신앙패턴을 공유한 동질집단이 생겨났다. 신인류라는 말처럼

사회적 이슈와 사회적 약자에 진정성 있는 관심을 갖는 독특한 복음주의(독특한 한 개인이 아니라, 교회, 교파, 지역, 규모 다 다른데도 비슷한 신앙고백, 신앙 패턴, 정서를 갖는 동질집단)가 한국에 탄생한 것이다.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없던 현상이다. 지금 한창 목청을 키우는 정치적 보수기독교 집단도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가 없었다면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전에는 교회 안 극우 정치설교만 있었다. 그러나 사회선교진영은 한국 복음주의 전체를 결코 대변하지 않는 복음의 총체성 가운데 한 부분임을 또한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다만 총체성 가운데 우리의 역할을 할 뿐이다.

### 3. 보수기독교 정치참여 운동

로잔운동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2000년 들어 새롭게 시작된 또 다른 기독교 사회참여운동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분명한 가치와 통일된 흐름을 갖춘 운동은 아니지만, 갈수록 분명한 영향력을 형성해 가고 있어 간단하게라도 언급해 보려고 한다.

만년 야당으로 남을 줄 알았던 민주당 김대중(1998~2003년), 노무현(2003~08년) 대통령이 연이어 10년을 집권하고 최근에도 문재인 대통령(2017~22년)을 거치면서 한국 사회에 진보 세력의 약진이 두드러졌지만, 이에 반발하는 보수 세력의 시민운동적 결집 움직임도 커졌다. 먼저 2000년대 초 일부 신진 보수정치인들과 옛 기독교 진보운동세력의 결합이 일어났다. 이들은 뉴라이트전국연합(김진홍/2005년), 기독교사회책임(서경석, 고직한/2004년) 등을 결성해 조금씩 다르지만, 보수정권 재창출이라는 공통과제에 함께 했고,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당선에 크게 기여했다. 이때 서로 적지 않은 친분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 후배들은 그들과 정식으로 결별하고 성서한국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다시 십 수 년이 흐르며 김진홍, 서경석 목사는 뒤로 물러났지만, 또 다른 보수 기독교사회(정치)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1989년)의 정치운동, 한국기독교당(2004년)에서 시작된 기독교당 운동과 전광훈씨, 에스더구국기도운동(2007년), 그리고 전국화 된 동성에 및 차별금지법 반대 운동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이합집산하고 있다.

### 4.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는 지속 가능한가?

로잔운동을 근거 삼아 지난 30년 이어온 한국형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은 비교적 길지 않은 역사와 경험, 열악한 인적, 물적 토대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제 몫을 감당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대를 지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낙관할 수 없다. 몇 가지 관점을 제안한다.

첫째, 시대와 세대가 빠르게 변해가고 있는데, 변화를 읽는 우리의 대응이 따라가지 못한다.

#### ①86형 복음주의 세대

- 극복하려는 공동 목표가 비교적 선명했다(독재와 재벌 반대, 남북통일).
- 한국교회를 향한 목표와 주장도 분명했다(성숙 이원적 천국관, 물신숭배, 기복신앙 극복).
- 따라서 86형 복음주의는 목표가 분명했던 만큼 사회적으로는 민주당 중심의 정통 야당 세력, 기독교적으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의 연대, 협력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로 충분했다.

#### ②MZ형 복음주의 세대

- 시대와 세대는 함께 변한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세대가 그대로 일수도, 세대가 변했는데 시대 과제가 같을 수도 없다. 1950년 한국전쟁 후 30년인 1980년대에 전쟁 대신 광주학살을 기억하는 86형 청년 세대와 증산층 등장으로 사회가 획기적으로 변했다. 이제 1980년 광주학살 후 30

년인 2010년대 이후 광주 대신 신자유주의의 폭독함에 내몰린 MZ세대가 일어났다. 그에 따라 세대도, 과제도, 운동방식도 다 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국힘당 중심의 보수안정 세력 vs 민주당 중심의 진보개혁 연대 vs 지속가능성, 미래 생존적 보편과제(비당파적 연합)'로 세분화.

-신앙적 이원론은 더는 가장 큰 문제가 아니다. 특히 MZ세대에게는 교리적 옳음은 현실에서 반드시 확인되어야 믿을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사회 이슈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그걸 교회 과제로 생각한다.

### ③여자월드컵 황금세대와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미래

-여자 월드컵(2023년 7월 20일~8월 20일)을 앞두고 아직 활동 중인 여자축구 황금세대(2010년 U-20 월드컵 3위, U-17 월드컵 우승)와 골때니 신드롬을 보며 역대 최고 성적을 기대했다. 그러나 세계 축구의 높은 벽 앞에 무기력했다(1무 2패로 조별리그 탈락). 진실은 이렇다. 등록 된 여자 축구선수가 황금세대 전성기인 10년 전보다 더 줄어 2019년 통계 4,200명밖에 안 된다(일본 390,000명, 피파 1위 미국 9,500,000명, 올해 우승 스페인 58,372명). 그래서 올해 월드컵 참가팀 중 최고령인 28.9세대(지소연 등 황금세대 모두 30대 초중반).

-현재 한국 복음주의 사회선교운동의 복사판이다. 86 정치인들의 기득권 세대 정치와 다른 모델이다.

-선배 세대는 자신들의 관심과 판단, 운동방식이 계속 중심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반면, 후배 세대는 불평보다는 좀 더 과감한 의제 설정과 시도가 필요하다.

-상대방 세대와 중심과제에 대한 세대적 간극이 적지 않다. 세대가 다르고, 경험(체험)이 다르고,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같등이 없을까? 없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그러나 운동장은 같이 쓰자. 같은 운동장에서 자기 관심대로 누구는 축구하고, 또 누구는 노래 들으며 춤추고, 누구는 달리기하고, 또 누구는 쉬며, 각자 좋아하는 걸 하다가 필요하면 전체 운동회도 하고, 또 편을 달리 짜서 다른 경기를 할 수도 있다.

-'K(한국)형 복음주의(로잔운동)은 지속 가능한가?' 선배가 답변할 몫이 있고, 후배가 대답해야 할 부분이 있다. 각자 자신들이 답변해야 할 몫을 고심해 보자.

둘째, 진정성과 설득력으로 결판날 것이다.

-주류 기독교 운동도 칼뱅주의-문화적 사명-영역주권론(카이퍼)를 학습하여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주장한다(물론 같은 언어에 다른 개념을 넣은 것이다). 같은 도구를 가지고 다른 농사를 짓는 것이다. 누구 세계관이 옳으냐의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삶의 진정성과 신앙적, 사회적 설득력으로 나타날 것이다.

결론을 대신하여: 2024년 로잔한국대회를 바라보는 제안

2024년 한국에서 로잔대회가 열린다는 것은 한국 준비위원회에서 밝힌 대로 여러 면에서 참 의미 있는 일이다.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되려면 전제가 있다.

첫째, 로잔 준비위원회에게 바란다.

1974년 시작 이후 50년이 흘러오면서 모든 대회마다 한국교회는 대표단을 파견하였지만, 한국 교회에 로잔 정신은 여전히 낯설다. 지금 대회 준비위 메시지와 활동 방식도 로잔 정신 구현과는 거리가 있다. 그래서 로잔 언약의 총체적 복음 정신과 크게 상관없는 국제대회를 무난하게

치르는 데 그치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과 염려는 여전히 정당하다. 잼버리처럼 되지 않도록 좀 더 분명한 책임감이 필요하다.

동시에 대회를 준비하는 주최와 주관조직은 제한될 수 있겠지만, 국제 로잔 정신은 공공재이므로 독점할 수 없다. 이제라도 로잔대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그 정신을 존중하는 한국교회의 다양한 동역자들의 목소리 청취와 반영에 더욱 힘써야 한다.

둘째, 사회선교운동 그룹에 바란다.

로잔운동과 한국대회에 대한 사회선교운동 그룹의 우려는 정당하다. 그러나 엄연히 2024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국대회에 그저 무관심하거나 어떤 의견도 없다면 우리 자신의 역사와 활동 근거에 대한 망각이 될 수 있다. 아쉬움이 있다면 그 아쉬움을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의 기회,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과거 로잔, 현재 로잔, 미래 로잔!

-우리가 50년 가까운 지금 로잔(별로 대단치도 않아 보이는)을 이야기하려 모인 것은 로잔을 통해 한국 사회, 한국교회, 사회선교운동, 곧 우리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다.

-로잔 주최 측(국제 로잔, 한국 로잔)은 2024년 대회를 통해 로잔이 존속해야 할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화려한 잔치와 함께 기억에서 사라질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년 한국대회는 '로잔 너머', '로잔 포스트'의 자리여야 한다.

## 제4차 로잔대회는 무엇을 넘어야 하나, 한 여성 신학·윤리학자의 제언

백소영 (강남대학교 기독교학 교수/한국여성신학학회 회장)

### 1. 들어가는 말

내년(2024년)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대회 제4차 모임을 준비하면서, 로잔이 ‘앞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넘어야 하는’ 과제들을 곱씹어보는 <로잔 너머> 포럼에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이 자리에 적합한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진영에서 범주화하는 기준으로 말하자면 저는 ‘복음주의 진영의 딸’이 아니거든요. 감리교 목회자의 자녀로 성장하면서 꽤 진보적인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고, 학부와 석사 과정 6년을 몸담았던 이화여대에서는 진보를 넘어 급진적인 신학을 배웠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초청되어 있네요. 우여곡절 사연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자리에 선 이상 작게라도 제 몫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러나 마음만 무거울 뿐, 역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로잔을 잘 모르거든요. WCC의 경우는 주변에서 활동하는 동료들이 많아서 어깨 너머 소식을 전해 듣기도 하고 선언문 내용을 때마다 읽게 되기도 했죠. 학교 수업 시간에도 종종 교수님들이 소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는 동안도 가르치는 동안도 제 학문 영역 안에서 로잔 운동과 관련된 선언문을 읽거나 토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성장하는 동안 로잔 정신으로 무장된 동료들도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한국로잔연구교수회>도 있고 이에 속한 여성 연구자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을 텐데,<sup>1)</sup> 여러모로 제가 부적격인 것만 같습니다.

하여 이번 발제를 준비하면서 배우는 자세로 ‘로잔 연구’에 매진했던 몇몇 연구자들의 논문들을 먼저 읽었습니다. 기초지식도 부족한 주제에 시간도 없어서 그간의 모든 로잔 발행물 들을 1차 자료 삼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낼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다만, 연구자들의 평가와 시각을 이해하기 위한 읽기가 아니라, 그간 로잔 운동의 진행 과정과 주요 선언문의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동의가 되는 부분은 명기하였지만, 이 글이 깊은 연구를 통한 학술논문이 아니고 학자 간 쟁점을 침례하게 다루는 목적이 아니기에, 주로 논문에서 인용된 로잔대회 핵심 텍스트들을 참고하기 위한 자료로 삼았습니다. ‘이미’ 분명한 관점(perspective)을 가지고 있는 중견(중년?) 신학·윤리학자로서 저는 ‘성·젠더 평등성’이라는 핵심어를 가지고 읽고 성찰했음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로잔이 말하는 “총체적 복음”이 정말 ‘총체적’이기 위하여, 4차 대회 준비모임이나 소모임에서 꼭 다루어졌으면 좋을 것들을 몇 가지 제안할까 합니다.

1) 한국에서는 1차 대회 이후 1974년 한국로잔위원회가 만들어졌고, 이어서 2012년 한국로잔연구교수회를 조직하고 로잔문서의 번역, 확산과 각 신학교에 로잔지도교수를 임명하여 로잔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장훈태, “로잔운동과 신학교육”, 253) 각 신학대학교 ‘로잔동아리’ 학생들과 2012년 11월에 첫 로잔캠프를 개최하여 학생 56명 교수 14명, 중앙위원회 5명이 참가했다고요.(장훈태, 254). 개별참여자들도 있겠지만, 현재 연구회 소속된 신학교는 나사렛대, 백석대, 장신대, 서울신대, 영남신대, 서울장신대, 한국성서대, 아세아연합신학대, 고신대, 침신대, 주안대학원대, 감신대, 협성대, 총신대, 햇불트리니티대라고 하네요.(장훈태, 254)



## 2. 로잔 운동의 '우선성'과 여성의 '전문성'

우선 '로잔과 여성'이라는 키워드로 한글 논문을 검색해보니 “로잔 운동이 바라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무슬림 여성”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하나 나오더군요.<sup>2)</sup>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한 이후 심각하게 제기되는 여성 인권에 대한 시대적 과제에 응답하는 글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의 교육권을 박탈하고 여성부를 폐쇄하고 직장 내 불이익을 자행하는 역행적 정부에 시위로 저항한 아프간 여성들과 연대하며 국제로잔위원회도 글로벌 Zoom 모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기도회를 가졌다고요.<sup>3)</sup> 이 논문의 III부가 '로잔 운동의 여성관'이어서 정보 습득에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만 구약성서의 가부장적 여성관을 가리고, 전제부터 꾸란의 알라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성차별/성평등으로 대비시키는 것이<sup>4)</sup> 불편했던 걸 보니, 저는 방법론이나 시각 면에서 '에큐메니컬의 딸'에 '가깝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을 통해 로잔 언약의 신학적 기초 위에 만들어진 3차 대회 선언문 <케이프타운 서약 신앙고백과 행동> 조항 중에서 여성과 관련된 부분을 소개받아서 제게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좀 길지만, 이 부분을 분석할 것이기에 인용해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고, 그들에게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고 말한다. 하나님에게 반역을 도모한 남녀를 통해 죄가 인류의 삶과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구원과 용납과 연합을 주셨다. 오순절에 하나님은 모든 육체와 아들과 딸들에게 똑같이 예언의 영을 부여하셨다. 따라서 여자와 남자는 창조와 죄, 구원과 영적으로 동등하다.(주 92) 남자와 여자, 기혼자와 미혼자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로서 다른 이들의 유익과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할 책임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를 섬기기 위해 주신 은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주 93)

A)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역을 멸시함으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주94) 나아가 우리는 자신의 지위와 권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한 부르심의 소명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은사를 책임 있게 사용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다음에 나오는 바와 같이 로잔의 역사적 위치를 확증한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주어지며 복음화를 위한 그들의 동반자적 협력은 공동의 선을 위해 기쁘게 수납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증한다.”(주 95) 우리는 성경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에 기여한 여성들의 놀라운 희생적 공헌을 기꺼이 인정한다.

B) 우리는 성경에 신실하게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 상이한 견해들이 있음을 인정한다. 여성은 가르치거나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해석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여성의 영적 동등성과 초대교회에서의 교화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의 예언의 은사, 여성의 가정으로 신자들을 초대하는 것을 여성의 리더십이 발휘된 것으로 이해해 이와 같은 영적 은사들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사역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주96) 우리는 이러한 논의들과 관련해 다음의 접근과 태도를 요청한다. 1.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분열과 파괴적인 언

2) 영어 논문은 검색하지 못했고, 우리나라 논문 검색 시스템에서 여성 문제가 관련된 로잔 연구는 이 논문 하나뿐이었습니다. 소윤정, “로잔 운동이 바라본 2021년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무슬림 여성” 『선교와 신학』 56집,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연구원 편, 2022: 239-273.

3) 소윤정, 242-243.

4) 소윤정, 258.

사, 혹은 서로에 대한 불경건한 적대감의 근거들을 없애기 위해 논쟁점들과 관련해 정죄함 없이 서로를 수용한다.(주 97) 2. 원 저자들과 현대의 독자들과의 문화와 상황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함께 성경을 연구한다.(261/262) 3. 고통이 있는 곳에서는 긍휼을 보여주고, 불의와 온전함이 결핍된 곳에서는 그것에 굳세게 맞서며, 어떤 형제나 자매 안에 나타난 성령의 분명한 역사를 거부하는 곳에서는 회개가 있어야 함을 인정한다. 4. 이 세상의 권력과 지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세를 반영하는 남녀의 사역에 헌신한다.

C) 우리는, 바울이 교회에 권고했듯이 선한 것을 가르치고 모범을 보인 경건한 여성들을 인정하고, 여성들이 교육, 봉사, 리더십, 특히 복음의 불의한 문화적 전통에 도전하는 상황에서 여성들을 위한 기회의 문을 전적으로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주 98) 우리는 여성들이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하거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을 열망한다.<sup>5)</sup>

인용된 본문만 읽으면 남자와 여자는 창조, 죄,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같은 존재론적 동등함을 가지며 영적인 능력도 차별이 없습니다. 한때(때론 바울을 포함하여) 남자만이 하나님의 형상인 듯 해석했던 가부장적인 논지를 ‘넘어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것을 명시했다는 점에서도 고무적입니다. 더구나 “성경 시대부터 현재까지 남자와 여자에 대한 사역을 통해 세계 선교에 기여한 여성들의 놀라운 희생적 공헌을 기꺼이 인정한다”는 내용에는 설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존재론적 평등성이 기능적으로도 평등성과 다양성을 담보하는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이 선언에 진심으로 동의하는 그리스도인이려면 ‘여성 안수’에 대해 신학적으로 반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선교사의 사역 현장에서 전형적으로 말씀 선포를 담당하는 남편과 내조를 담당하는 아내의 성역할 분담도 ‘넘어서’할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 이 논문의 저자 소윤정도 <케이프타운 서약>에 근거하여 여성 안수를 촉구하고 더불어 여성 사역의 전문성을 주체화하고 다양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부 선교사의 경우에도 아내 선교사의 독립적 영역이 인정되기보다 남편 선교사의 보조자로 인식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살림을 하는 주부로서의 내조자가 선교지에서 평가절하 되는 경우도 없어야 하겠지만 이슬람권 선교지에서 주변 무슬림 가족들과 우정 관계를 맺게 되는 연결고리로서 여성 선교사의 역할은 사실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슬림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복음사역에 있어서 여성 선교사는 독립적 영적 권위가 담보되어야만 하며 무슬림 여성의 신앙교육을 전담할 수 있을 만한 신학교육도 필요하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 현재 아프간 무슬림 여성의 복음화를 위하여서는 훈련된 여성선교사가 필요하다. 현장의 요구로 적절하다.<sup>6)</sup>

그런데, 소위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대전제에 익숙하지 않은(실은 ‘복음’이 무엇인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의 시선에서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땅의 여성은 목회자로 부름 받거나 선교사가 되는 사람들뿐인가요? 이는 결코 한 연구자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닙니다. 사실 소 교수는 로잔 선언문에 근거하되 로잔의 함의보다 훨씬 더 ‘넘어서’ 제안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케이프타운 선언문에 포함된 여성관 자체가 ‘총체적’이지도 ‘구체적’이지도 못하다고 봅니다. 물론 로잔 운동의 핵심적 지향점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그리고 상당 부분 그것이 ‘미전도 종족에 대한 전도’로 이해하고

5) 소윤정, 260-262 재인용.

6) 소윤정, 262-263.

있는 선에서 여성이 부름 받은 '소명'의 부분을 '총체적'으로 바라보지 못했음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나아가기' 위해 필수적으로 '넘어가야'하는 과제는 짚고 가야지요. 로잔 운동이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창세기의 창조 명령(만물을 다스림, 창세기 1장 28절)과 예수의 지상명령(제자를 삼음, 마태복음 28장 18~20절)의 실천적 해석과 적용에서 '여성'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소윤정은 로잔의 우선적 명령 안에서 선교 현장에서의 여성 사역의 전문성을 확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복음 안에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창조물로서의 정체성 회복이 가능하다. 이를 위하여 로잔운동이 강조하고 있는 남성과 여성의 협력사역이 필요한데, 여성 사역의 전문화와 전략수립을 위하여 한국교회는 여성선교사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인 사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원하고 제도적인 장애물을 철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부부사역자에게 있어서 여성선교사의 전문영역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 싱글 여성사역자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독립권을 보장하고 영적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리라고 본다.<sup>7)</sup>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선교 현장은 과연 미전도 종족의 공간뿐일까요? 이미 로잔도 선언하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들에 책임 있게 대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 평신도의 리더십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목회자나 선교사가 아닌 다음에 '남은' 여성의 소명은 모두 가정 사역이어야 하는 건지요? 선언문이 문서화될 때 언급되지 않은 것은 실천적 권위를 가지지 못합니다. 때문에, 여성의 전문성과 관련하여 보다 '총체적'인 언급이 필요합니다.

물론 평신도 전문성에 기반하여 선교의 영역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은 로잔 대회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표면화되었습니다. 2차, 3차 대회를 거치면서 '전문인 선교'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베를린 대회 의장이었던 빌리 그레함의 개회 연설에도 명시되었듯이, 이는 "복음 전도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서 "교회의 일반 신도들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도록 조직하는 것"이고,<sup>8)</sup> 이때 평신도들이 가지는 전문성은 직업 전문성일 뿐, 그들의 선교 사역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전문성'은 전문적인 선교사역자들이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sup>9)</sup> 그러니까 "직업인 선교의 전략적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죠.<sup>10)</sup> 이는 2차 대회의 결과 자료인 <마닐라 선언>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평신도 전도를 위한 또 하나의 상황은 일터이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을 일터에서 보내기 때문이며, 또한 직업이란 하나님의 소명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입술의 언어, 일관성 있는 근면, 정직, 신중성, 일터에서의 정의에 관한 관심 및 특히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하는 일의 내용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sup>11)</sup>

7) 소윤정, 266.

8) 김광성, "로잔 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개념 고찰", 『복음과 선교』 제24집(2021), 22.

9) 김광성은 위의 논문에서 전문인 선교를 '평신도 선교'와 동의어로 이해하기보다는 "목회자 전문인 선교사와 일반 신도 전문인 선교사가 함께 참여하는 선교 전략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김광성, 18.

10) 김광성, 29.

11) 마닐라 선언, 2부 II-6, 김광성 29에서 재인용.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활발한 최근의 정황으로 볼 때, 이를 직업 현장에서 적용한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크게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언 자체는 직장 내 여성의 배치나 역할이 얼마나 '성경적'인지, 직장 내 관계 질서를 정의롭게 한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의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의제를 가립니다. 오히려 보수적 성경관과 직업 전문성을 가진 여성 평신도가 시스템에 관한 질문 없이 자신의 일터와 가정에서 선교적 자세로 임할 때 어떤 방식의 '질서'를 유지하는 데 열심일지 우려되는 부분이지요. 그리고 그 '열심'이 과연 복음에 부합하는지는 의심이 듭니다.

#### 4. 로잔 운동의 '사회적 책임' 이해를 넓히기 위한 초청, 다르게 '읽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래서 저는 이번 4차 <로잔대회>에서 그동안 로잔 운동의 성경관이 막연하게 여성과 남성의 영적 동등함만 주장했던 것을 동어반복 할 것이 아니라, 여성의 존재 방식과 역할에 대한 주제들을 명료히 하고 성경적인 성찰을 치열하게 전개하여, 구체적인 선언들이 문서화되기를 제안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까닭에 진실하고 권위가 있으며 오류가 없고, 신앙과 생활의 무위한 유일한 규칙이다. 성령은 오늘날에도 성경을 통해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어느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깨우쳐 그의 구원과 목적을 이루신다.”<sup>12)</sup>

이 '아름답고 은혜로운' 선언은 근본주의 신학이 주장하는 성서무오나 축자영감과 무엇이 다른지요? 이런 읽기 방식이라면 여성, 젠더 이슈 논의의 출발이 가능하긴 한가요? 물론 이러한 선언은 종교개혁 전통을 따라 '오직 성경으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답하겠지만, 성경을 불드는 방식에 대한 논의나 논쟁, 고민이 없지 않나요? <시카고 선언>(1978)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완전축자영감으로 말미암은 무위성과 무오성을 강조”했죠.<sup>13)</sup> 1989 미국복음주의협의회(NAE)와 세계복음주의협의회(WEF)의 후원 아래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의 트리니티복음주의신학교에 모여 작성한 <복음주의 선언>(1989)에서는 “성경이 신앙과 생활의 절대 무오한 규칙일 뿐 아니라 역사와 자연계에 대해서도 진리의 원천임을 주장하고, 성경은 성경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고 했지요.<sup>14)</sup>

언어화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언어가 해석되는 현장의 전제(taken-for-granted, 당연히 여겨지는 것)라고 생각합니다. “온전한 복음(Whole Gospel)을 온 교회(Whole Church)가 온 세상(Whole World)에 전한다.”는 로잔 운동의 슬로건도 그러합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하기까지 그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그 선언이 꼬박여지는 현장이 가부장제 사회라면 '만인'은 1, 2, 3계급을 포괄하되 오직 '남자'만을 포함하는 뜻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고백되지만, 꽤 오랫동안 아메리카 대륙에서 흑인과 유색인종은 그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음도 압니다. 따라서 로잔대회의 선언문이 남녀의 영적 평등성과 소명의 상호협력을 말했다고 하여 이것이 정말 당대의 사회 제도적 제약을 뛰어넘어 '성경적'으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12) 로잔언약 4.2.2, 나용화,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의 과제” 『개신논집』 7(2007), 141.

13) 나용화, 147.

14) 나용화, 147.

이 지점에서 로잔 운동의 DNA가 1세계, 남성, 보수/근본주의적 신학 성향을 ‘주류’로 하고 있다는 점은 간과해서 안 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렸던 <세계 복음화 국제회의(The International Congress On World Evangelization)>는 상당히 ‘방어적’이었습니다. 1962년 소집된 제1차 바티칸공의회가 상당히 ‘에큐메니컬’한 기조로 흘러갔고, 1968년 WCC 옅살라 총회는 선교의 목표를 “인간화”로 선언하면서 기존의 전도 중심의 선교방식에 대한 신학적 도전을 했기 때문이죠. 로잔의 언어들은 사회복음 운동, 독일 정치신학, 남미 해방신학 등에 대한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전도의 우선성(primacy of evangelism)’은 이런 분위기에서 강조되었죠. 물론 휘튼 선언(1966. 4)의 초안을 미리 보았던 비서구권 교회 대표들의 반발과 제안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에 대한 조항을 첨부하였지만,<sup>15)</sup> 이 부분 이 어떻게 이해되는가는 1세계와 3세계의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요. 더구나 휘튼 선언이 가진 사회적 성향에 위기감을 가진 대응 모임이었던 베를린 세계 복음 전도대회(1966. 10)의 주도적 지도자들이 1세계 출신이라는 점, 그들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과 더불어 가톨릭의 ‘하나님의 선교(missio dei)’ 이해를 반박하고, 에큐메니컬 선교의 ‘인간화’에도 동의하지 않음을 천명한 지점을 연결할 때, 서구 교회 지도자들이 1차 로잔대회에서 (마지못해) 받아들인 “사회적 책임”의 촉구가 얼마나 적절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sup>16)</sup>

이를 여성관에 적용한다면 더 열악해집니다. 1세계와 3세계의 관점과 경험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로 연대하게 하는 시선은 ‘가부장제’ 안에서 동일했습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전례가 있지요. 1960년대 후반에 흑인인권운동과 연대하여 모든 종류의 차별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했던 초기의 여권운동가들은 여성 문제를 다루는 백인 남성과 흑인 남성의 동일성에 놀랐습니다. 물론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된 로잔 2차(1989. 7) 대회에는 피식민 경험이 있는 장소성을 반영하듯,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반대되는 악의 목록이 구체화되었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는, 그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해 예언자적인 지적을 하도록 요청한다. 우리가 개탄하는 악은, 제도화된 폭력, 정치적 부패, 사람과 땅에 대한 온갖 형태의 착취, 가정 파괴, 낙태, 마약 유통, 인권 유린과 같은 파괴적인 폭력을 의미한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제3세계에 사는 그 많은 사람들이 부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사실을 마음 아파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수백만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인 조건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한다.<sup>17)</sup>

가정파괴, 낙태... 여성이 관련된 문제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시각과 방법론은 결여되어 있지만, 그래도 선교의 영역으로 명시되고 언어화되었다는 점에서 고무적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효성을 가지고 실천될 수 있었을까 질문하다가 박보경의 글에서 <마닐라 선언문>의 언어들이 구체적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읽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이후 로잔 운동은 ‘주후 2000년과 그 이후의 도전 운동(AD 2000 and Beyond Movement)’이나 ‘영적 전쟁 네트워크(Spiritual Warfare Network)’의 결성 등을 통해서 신학적으로 훨씬 더 보수적으로

15) ‘급진적인 제자도 그룹’이라는 이름의 제3세계 지역 교회 지도자들이 ‘로잔에 대한 반응’이라는 문서를 폐회 당일 총회에 제출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 창출되었다고 하네요. 의장 존 스토틀의 환영, 500여명의 찬성 서명 속에서 ‘로잔 언약 부록’으로 채택되었다고 읽었습니다.(이문식, 로잔 너머 1차 심포지엄 자료집, 6) 급진적 제자도 그룹의 학자들은, 사무엘 에스코바 (Samuel Escobar), 올란도 코스타스(Orlando E. Costas), 르네 빠디아(Reme Padilla)이라고요. (이문식, 13)  
 16) 5항 “전도와 사회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우리는 인정한다.” 안승오, 146에서 재인용.  
 17) 박보경, 145.

선회하였다.”고요.<sup>18)</sup> “‘주후 2000년과 그 이후의 도전’ 운동은 10/40창에 집중되어 있는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을 향한 복음전도의 사역을 2000년까지 펼칠 것을 제안하고 세계복음화를 슬로건으로 내건 단체들이죠.<sup>19)</sup>

충분히 예상 가능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한번 합의되고 명시화된 것은 다음 단계의 근거가 됩니다. 박보경에 따르면 2004년 <파타야 대회>에서 처음으로 구조악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 그 악의 구조 속에서 가해자의 편에 선 자와 피해자의 편에 선 자 사이에 ‘화해’가 긴급함을 촉구했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진행하면서 가장 도전이 되는 것이 무엇이나’는 설문 조사를 통해서 답을 도출하고 총 31개의 주제를 선정하여 토론하는 과정이 진행되었지요.<sup>20)</sup> 그중 22번째 이슈가 ‘화해’였습니다. 이때 논의된 화해 이슈들은 이후 그룹 토의를 넘어서 로잔 진영 내 첫 번째 ‘화해’에 관한 공식적 선언문의 결실을 보게 되었죠. “화해의 실천을 위한 우리의 헌신”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삶에서는 치유를 추구하고, 용서와 고백을 실천하며,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서로 연대하고, 도움을 주며, 파괴적 분열과 갈등에 탄식할 것, 희망의 표징들을 찾아 축하할 것, 발전적 관계와 파트너십을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고 초대할 것, 예언자적 목소리를 높여 정의와 화해를 옹호하고, 교회와 시민사회 정치지도자들에게도 정의와 화해를 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sup>21)</sup> 박보경은 이 선언문이 그동안 “하나님과 인간 간의 수직적인 화해만을 강조하였던 것과는 달리” “수평적 화해를 위한 공식적인 선언문”이라는 점에 의의를 둡니다.<sup>22)</sup>

무엇보다 이 대회에서는 서로 긴급한 행동강령을 추리면서 7번째로 “화해의 응급성”을 선포했죠. 그동안 ‘복음 전도의 우선성’을 말하면서 복음이 전달되는 공간과 그곳의 사람들이 어떤 배치에 있으며 복음 전달자가 온 나라, 계층이 어떤 상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없었던 것에 비한다면, 놀라운 전진입니다. 이 계기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조차도 인종간, 민족간, 부족간의 화해가 절실히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고,<sup>23)</sup> 이후 3차 대회에 매우 주요한 의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3차 대회 서약인 케이프타운 서약문에는 “종족 갈등 속 평화, 가난과 억압 속 평화, 장애인들에게 평화, 에이즈 환자들에게 평화, 고통 받는 피조물 속 평화”라는 5개 영역이 설정되기에 이르렀죠.<sup>24)</sup> 특히 가난과 억압 속 평화의 세부 사항으로 “인신 매매, 성매매를 위한 아동 노예화, 강제노동, 군정집을 통한 아동 학대”를 비판하고<sup>25)</sup> 화해를 실천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결성하였습니다. ‘총체적 선교 네트워크’ ‘화해 네트워크’ ‘위험에 처한 어린이들 네트워크’ ‘정직과 부패 방지 네트워크’ ‘자유와 정의 네트워크’ ‘장애인 네트워크’ ‘창조세계의 돌봄 네트워크’가 그것이죠.<sup>26)</sup>

18) 박보경, 145.

19) 박보경, 146.

20) 박보경, 147.

21) 박보경, 149에서 문맥에 맞게 조사 수정하면서 재인용.

22) 박보경, 150.

23) 박보경, 150.

24) 2-B 항목. 박보경, 153에서 재인용.

25) 박보경, 154.

26) 박보경, 157. 2014년 3월 브라질에서 개최한 “번영신학, 가난과 복음에 대한 로잔대회”에서는 “번영신학이 제공하는 잘못된 희망, 즉 축복과 신적 보상을 인위적이며 기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박보경, 159) “구조적 정의와 가난(Structural Justice and Poverty)”에 관한 행동강령, “그리스도인들은 빈곤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은 윤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을 포함하여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 혜택을 통해 그들을 세우고 개인의 존엄뿐 아니라 공동체의 존엄까지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한다. … 우리는 어떤 영역에서는 수입 창출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전에 먼저 구조적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함을 인정한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부패와 억압의 상태를 저항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을 향한 정의로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구조를 만들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결국 이러한 변화는 세계적 상황

그런데 말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그 모든 ‘화해’의 범주 안에 ‘남자와 여자의 화해’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사랑의 대상이고 상호 보조적 협력의 대상이라는 신학적 전제가 현실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도 인종 간 갈등과 보복의 행위로 모녀를 잡아다 강제로 운간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킨다며 친족에 의한 명예살인이 진행되며, 그만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도 해도 ‘여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의 생애사를 주체적으로 만들어갈 기회를 박탈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여자들은 남자보다 부자이지만, 세계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성별을 분류하면 압도적으로 여자가 많습니다. 인류의 반이 매일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과 폭력과 가난의 현실인데, 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젠더 갈등이 첨예한 한국 땅에서 제4차 대회가 열리는 것은 의의와 과제를 함께 부여한다고 봅니다.

우리의 복음 전도 과제는 그 좋은 소식을 모든 나라들에 알리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선교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곧 죄와 고통과 불의와 창조 질서의 왜곡으로 가득한 세상이며, 이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대신해 사랑하고 섬기도록 우리를 보내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선교에서 복음 전도와 세상에서의 헌신적인 참여가 통합되어야 하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성경 전체의 계시가 명령하고 주도하는 일이다.<sup>27)</sup>

‘그 좋은 소식’이 이 땅의 여성들의 삶에도 총체적이고 통전적으로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이를 가로막는 장벽들이 먼저 언급되고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를 의논해야 하지 않을까요?

#### 4. 생명 성장의 법칙,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제4차 로잔대회가 열리는 2024년은 로잔 운동의 주요 지도자 중 하나인 빌리 그레함과 연관하여 두 사건이 5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현대사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첫 번째 사건은 1974년 <엑스포로 74 대회>이죠. “예수 혁명” “성령 폭발”을 주제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는 표어 아래 수많은 한국 복음주의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인 1973년에는 빌리 그레함 전도대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었죠. 5일간 112만 명이 집결했던 어마어마하게 큰 대회였습니다. 이 두 운동이 직접적으로 로잔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빌리 그레함이 당시 로잔 운동의 핵심이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메시지와 파급력은 같은 선상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 순서로 보면 여의도 부흥 성회가 있었고 로잔 1차 대회가 7월에, 그리고 엑스포로 74가 8월이죠. 그야말로 불길 같이 번져나갔습니다. 이래저래 내년에 한국에서 열리는 로잔대회에 기대가 클 듯합니다.

하지만, ‘\*\*주년’과 같은 기념에 열을 올리기 전에, 우리가 꼭 주목했으면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동질성의 집단’ 안에서는 기껏 바깥의 목소리를 수용해서 선언문을 만들어도 결국 제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깥의 사유, 시선, 언어, 실천을 가져오지 않는 모임은 좌든 우든 ‘보수화’됩니다. 채수일 전 한신대 총장은 부산 대회 이후의 소회를 밝히는 글에서 이렇게 썼더군요.

---

이 변화함에 따른 반응이라는 것이 박보경의 평가입니다.(박보경, 159)  
27) 안승오, 155에서 재인용.

나는 WCC가 어쩌면 캔버라 총회 이후 이미 보수적으로 변했고, 더 이상 새로운 신학적 담론이나 예언자적 목소리를 WCC로부터 들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WCC가 더 이상 신학과 증언의 중심부논커녕 코디네이터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새로운 신학은 중심부가 아니라 주변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주제의 문서들이 준비되고 토론되었지만, 귀 기울일 만한 새로운 내용도 없고, 북미주와 유럽중심주의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습니다.<sup>28)</sup>

하물며 로잔일까요. 제3세계 교회 대표들이 투쟁적으로 선언하여 기껏 로잔 언약에 포함된 ‘사회적 책임’과 ‘총체적 복음’의 내용이 실효성은커녕 아예 ‘오독’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7월 <뉴스앤조이>에는 매우 흥미로운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 기사 안에 김준곤 박사가 구원의 총체성을 얼마나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 인용이 되어 있더군요.

사회 해방이, 사회 구원이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목적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구원력은 이 사회 구석구석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 이런 문제들을 복음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세계의 전 교파를 대표하여 4000명의 복음주의 신학자들이 몇 년 전에 로잔스에서 모였습니다. 그 때 로잔스 커버넌트라고 선언한 것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전도에 대해, 특별히 사회 구원과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회 행동이 전도는 아니며, 또 인간과의 화해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로 정치 해방이 인간 구원이 될 수 없다.’ 굉장히 간략하고 선명하게 전도에 대하여 정의를 내린 줄로 압니다.<sup>29)</sup>

이것은 생명의 필연 법칙입니다. 긴 토론과 부딪힘 속에서 겨우 합의된 ‘복음의 총체성’이 이렇게 다시 분열됩니다. 고인 물이니까요. 같은 시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힘을 나누고 해석권을 가지니까요. 고인 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흐르는 수밖에 없습니다. 흐르려면 새 물을 받아야지요. 최근 로잔 운동 안에서도 신학연구위원회(Theology Working Group)의 구성원들은 에큐메니컬 진영이 던지는 선교적 주제들을 진지하게 숙고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세대가 바뀌면서 유입되는 ‘새 물’도 있겠지요. 여기에 더하여 ‘여성(주의적) 이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참고문헌

김광성, “로잔 운동 선언문에 나타난 전문인 선교 개념 고찰”, 『복음과 선교』 제54집(2021): 9-42.

나용화, “잔 언약과 한국교회의 과제”, 『개신논집』 7 (2007): 121-152.

박보경, “로잔운동에 나타나는 화해로서의 선교: 2004년 파타야 포럼과 케이프타운 서약문을 중심으로”, 『선교신학』 38 (2015): 141-170.

박영환, “베를린 세계복음전도대회가 로잔대회에 끼친 영향과 과제”, 『선교신학』 46(2017):

28) 채수일,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향후 한국교회의 과제” 『세계와 선교』 217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5-6.

29) 김준곤, “보냄받은 자의 사명” (1981. 1. 25), <뉴스앤조이> 2023년 7월 17일자 인터넷 기사 “2023년 7월, 한국 교회는 무엇을 기억할 것인가-빌리 그래함 전도 대회 50주년 기념대회를 지켜보며”



108-144.

안승오, “로잔신학의 흐름에 있어서 우선순위 문제”, 『선교신학』 40 (2015): 143-170

이문식, “로잔 언약과 한국교회-언약과 선언과 서약으로”, 「‘로잔 너머’ 연속심포지엄 1차 로잔운동과 한국교회」 2023. 6.27. 자료집: 3-18.

장훈태, “로잔운동과 신학교육”, 『선교신학』 40 (2015): 241-274.

채수일 “WCC 제10차 부산총회와 향후 한국교회의 과제”, 『세계와 선교』 217.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2013 겨울호: 3-6.

## 로잔운동과 한국사회선교운동 토론문

이성영 (희년함께 토지정의센터장)

### 한국형 로잔운동, '성서한국 대회 -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

저에게 80년대 선배님들이 겪으셨던 '로잔언약'의 경험은 성서한국대회입니다. 어려서부터 고신 교단에서 자라면서 주일에 돈도 쓰지 않는 엄격한 주일성수와 중고등부 수련회에서 매번 선교사로 헌신하라는 요청에 자의반타의반으로 일어났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일성수와 복음전파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성경적 토지정의, 공평과 정의를 외치는 단체로 오기까지 몇 번의 생각의 전환과 관점의 정립이 필요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 성서한국 대회였습니다. 대학생 시절 학교에서 성토모(성경적토지정의를 위한 모임) 지부 모임을 하면서도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선교에 대한 신학적 토대와 세계관의 정립이 되지 않아 기존의 이원론적 신학체계와 뒤섞여 혼란스러운 상태였는데 2006년 성서한국 대회에서 주강사 김희권 목사님의 여호수아 강해를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사회선교에 대한 신학적 체계와 세계관을 제대로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은 마치 목이 타는 중에 시원한 생수를 들이킨 것과 같은 느낌으로 남아있습니다.

80년대 불의한 시대 현실과 보수교회가 말하는 정교분리 기독교신앙 사이에서 힘겨워하던 그 시절의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보수교회에 몸담고 있던 신앙의 선배들이 로잔언약이 제시했던 온전한 복음,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에 얼마나 해방의 감정을 느꼈을지, 청년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참여에 적극적인 동력이 되었을지 2000년대 중반 성서한국대회를 통해 해방감을 느꼈던 제 경험 속에서 대략이나마 짐작해봅니다.

### 로잔 이후의 고민

성서한국대회에서 사회참여에 대한 신학적 토대와 관점을 정립한 후 20여 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2000년대 이후에는 정교분리를 주장했던 보수교회도 적극적으로 광장에 나가서 사회참여를 하고 있기에 더 이상 '기독교신앙에 기초한 사회참여'에 대한 제안은 교회를 향한 주된 요청사항은 아니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대답'에 관한 최근 제 고민의 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서로가 생각하는 사회참여의 방향은 다른가'입니다. 거칠게 말하면 신학적 토대가 달라서라고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 간단하지 않은 것은 같은 신학적 토대를 공유하고 있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서서히 분화가 나타나는 조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

으로는 '신학적 토대가 같더라도 세대와 지역 등 각자가 서있는 지점에서의 경험의 차이로 인해 사회참여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거친 가설 정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참여의 방향이 다르더라도 소통과 대화를 통해 접점과 협력지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입니다. 사고체계와 경험의 차이로 인한 분화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면서 접점과 협력지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분화는 분열이 아닌 다양한 사회참여의 장을 여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상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의식이 있음에도 생각이 다른 이들과 만나 대화하고 교류하는 일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해당 이슈에 대해 대의명분과 열정의 강도가 높은 사람일수록 본인이 생각하는 중요한 의제를 상대방이 공감하거나 지지하지 않으면 마음 상해하고, 감정 섞인 대화로 관계의 문이 더 닫히면서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더 모이게 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소위 '정치적 부족주의'가 더 심화되는 흐름을 종종 봅니다.

소통과 협력은 가능한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저 스스로에게 물어 봐도 자신이 없습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더 넓은 연대와 우정을 쌓기 위해서는 '고도의 영성'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과 포용의 영성이 깊어지지 않고 공평과 정의의 잣대만 날카로워지는 것은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 사회에 혐오와 증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와 경계가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계심은 어떻게 사랑과 포용의 영성을 기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세 번째 고민으로 이어집니다. 생각이 다른 이들과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사랑과 포용의 영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는 좋은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 '쉽과 성찰'을 돕는 시공간 속에서 자신의 확신에 대해 여지와 여백을 두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자는 건강한 교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면 자연스레 가능하겠지만, 후자는 기도원 문화의 보수교회를 기반으로 하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다소 낯설게 느껴집니다. 간구와 강청의 통성기도 중심의 기도원 문화에서 '쉽과 성찰'이라는 단어는 물과 기름같이 이질적인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영성훈련에서 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톨릭과 성공회에서는 '쉽과 성찰'이 그리 어색하지 않습니다.

우파 개신교 기반 사회참여 진영들의 공격적인 광장 사용 방식을 보면서 간구와 강청기도 중심의 기도원 문화와 유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개신교의 기도원 문화가 '성찰과 돌아봄', '쉽을 통한 여지와 여백'을 두는 법을 상실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최근 '수도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것은 반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역시도 기도원 문화에 익숙한 보수교회에서 자라나 피정 문화에 익숙하진 않지만 개신교 수도원인 예수원과 성공회 피정 등을 통해 '쉽과 성찰'을 돕는 수도원 문화에 대해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수도원 전통의 기도와 독서 방식, 피정 등을 통해 쉽과 성찰의 계기를 만들어 포용의 영성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뿐 아니라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세상의 속도와 리듬에 휘둘리지 않도록 도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변에 사회운동을 하는 비기독교인 분들 중 휴가를 내어 가족들과 함께 템플스테이에 참여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왜 참여하시는지 물어보

진 않았지만 괴물과 싸우다 피폐하고 공허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시의 경쟁문화와 속도에 지친 많은 이들이 템플스테이를 찾는 모습을 봅니다.

절대빈곤을 극복하고자 노력했던 산업화가 한창이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한국에서는 간구와 강청 기반의 기도원 문화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호소력이 있었고 그 덕분에 많은 이들이 교회를 찾게 되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하지만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무한경쟁, 물질만능주의에 질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K 복음주의가 이들에게 숨 쉴 공간과 대안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로잔이 진보와 보수 개신교의 화해를 모색했다면 로잔 너머는 2000년 교회사와 화해를 모색하며 교회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또 한 가지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추신 : 오늘의 발제문은 아니지만 지난 1회 이문식 목사님의 발제문에서 이문식 목사님의 삶과 사역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었습니다. 목사님 사역의 주요 키워드인 외국인노동자, 지역 등은 사랑과 포용의 영성을 기른 이들이 가야 할 오늘의, 그리고 앞으로 더욱 중요하고 시급해질 내일의 주요 사역지라고 생각합니다.

##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넘을까요?

박현철(청어람ARMC)

복음주의적 사회 선교 현장의 최전선에서 총체적 복음의 구현을 고민하고 그 정신을 지켜가고자 하시는 분들과 함께 대화하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2000년대 초반 대학기독교인연합 운동을 통해 복음주의 운동, 정확하게는 사회 참여적 복음주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을 접하고 그 안에서 제 신앙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그렇기에 제가 지금 사회 선교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활동가는 아니지만,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후예이자 열매라고 생각하며 복음주의 활동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20여년의 신앙적, 신학적 여정 끝에 저는 더 이상 복음주의자가 아니며, 정확히 말해 복음주의자일 수 없겠다는 혼란과 애증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복음주의는 제 신앙의 토양이지만, 2023년 현실의 복음주의는 제가 그리고 오늘 우리 모두가 넘어서야 할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인적 맥락에서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대표적 활동가이신 구교형 목사님의 글과, 스스로 복음주의와 거리가 있다고 고백하시지만 복음주의자들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며 많은 부분에서 공감하며 의지하고 계신 백소영 교수님의 글을 보며 많은 배움을 얻고 고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구교형 목사님의 글은 한국 교회의 사회 선교 운동의 역사와 맥락을 잘 설명해주며, 그 가운데 로잔 운동이 미친 영향과 성과를 잘 정리해주셨습니다. 특별히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큰 흐름을 요약해주셔서 후배로서 배울 점이 많았고, 뒷부분에 담긴 제안들은 선배로서의 고민을 많이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선후배 세대들이 함께 고민하고 응답해야 할 글이라 생각합니다.

백소영 교수님의 글은 객관적 시선으로 로잔운동의 전개와 신학적 지향 속에서 드러난 여성관을 분석하고 그 한계와 극복해야 할 점을 예리하게 지적하셨습니다. 총체적 선교니 하나님 나라니 하는 거대담론에 매몰되지 않고, 그 속에서 소외되는 이는 없는지 따져 물으며 ‘끊임없이 흘러갈 것’을 요청하는 말씀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두 분의 글을 읽고(사실은 읽기 전부터) 제 머리 속에 들었던 몇 가지 질문을 털어놓는 것으로 토론자의 역할을 감당해보려 합니다.

저의 첫 번째 고민은 우리는 로잔 운동의 성격과 기여, 그리고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소위 '로잔 운동'은 복음주의권의 사회 참여적 흐름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사건이며 흐름임은 분명합니다. 74년의 로잔과 그 이후 마닐라, 케이프타운 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문서에서 총체적 선교가 강조되고, 사회 참여가 더 이상 진보적인 이들의 전유물이 아닌 보수적 선교에서도 중요한 의제로 부각된 점은 로잔의 가장 큰 기여입니다. 이재근 교수는 '한마디로 말해, 로잔 이후 복음주의는 이전과 같을 수 없다'(<세계 복음주의 지형도>, 209쪽)고까지 선언합니다. 덕분에 이제는 누구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근본주의-복음주의의 신앙 전통을 넘어 그리스도교 전체의 맥락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선언이었는지는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잔 선언과 대비되는 WCC의 선교 모라토리움 선언과 인간화(humanization)에 대한 고민, 그 이후 이어진 하나님의 선교의 흐름,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며 발전해온 신학적 의제들과 비교해 볼 때 로잔 운동이 제시하고 발전시켜온 의제들은 그리스도교 전체를 위해 얼마나 의미 있는 변화와 진전을 만들어왔는지 의문입니다. 74년 존 스토트의 역할과 르네 빠디야, 사무엘 에스코바 등 남미 복음주의자들의 기여가 전설처럼 전해져내려오지만 그것이 정말로 이전과 얼마나 다른지, 로잔은 '세계 기독교'를 선도하는 주된 흐름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지, 끝내 그것을 붙들고 지켜내야 할 만큼 유의미하고 독창적이고 가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과연 로잔 운동은 하나님의 온 세계, 모든 창조세계가 함께 번영하는 집(oikumene)을 위한 충분한 선언이고 활동이며, 그에 걸맞은 열매를 맺어내고 있습니까?

그렇기에 지금 우리가 우려하는 바 24년 로잔 총회에 한국 대형교회들이 지원하며 총체적 복음 운동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은 로잔 운동 자체가 가진 한계가 아닌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24년 대회에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74년 당시 빌리 그래함이 대회를 주도하고 장을 만들어낸 바에 비해 무엇이 다른지? 애초에 로잔이 가진 보수성과 한계, 한걸음 더 나아가서 로잔이 주장하는 총체적 선교라는 개념의 모호성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로잔 너머 같은 성찰의 자리가 필요한 것이겠지요. 다만 대형교회들이 로잔의 정신을 계승하지 못함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애초에 로잔의 정신이라는 것이 과잉 대표성을 띤 것은 아닌지,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 역시 로잔 운동의 성격과 한계를 과대평가하고 관성적으로 추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질문은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로잔대회와 거기서 제시하는 총체적 선교 개념에 얼마나 관심을 가져왔고, 그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운동의 진정성과 성실성, 나아가 총체성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74년 대회부터 이미 한국 교회는 로잔 대회에 참석해왔고 직간접적으로 국제 로잔 운동과 연결해 여러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미 89년 마닐라 대회 이후 한국 로잔위원회가 있을 설립되었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수영(전 새문안교회), 이종윤(전 서울교회) 등이 위원장을 맡으며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가 위원장으로, 그 외에도 다수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지도자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각 신학교 교수들이 포진해 있는 로잔 교수회와 그 지도를 받는 신학교별 로잔 동아리, YLG(Young Leader Group)등 교회와 신학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활동이 국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교형 목사님은 ‘한국에서(특히 한국의 사회 선교 운동에서) 로잔 운동의 간접적, 우회적, 사후적 수용형태가 독창적이고 뚜렷한 특징을 가졌다’고 자평하셨습니다만, 이는 사후적 평가일 뿐 한국에서 실제적 로잔운동의 주류 활동은 이미 대형교회가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총체적 선교’의 정신을 대형교회들이 전유해서 사용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로잔의 정신을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실천해 오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로잔 운동에 관여하고 그 전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 정신을 현실에 맞게 발전시키는 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유신독재가 절정이던 당시 참석자들조차 이를 자세히 소개하기 어려운 분위기였다’는 한 줄의 정리는 오히려 로잔 운동을 신화화 시키고 적극적인 참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이 24년의 로잔에 대해, 그리고 그 너머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명분은 물론이고 구체적인 역량과 담론을 과연 갖추고 있는지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그동안 많은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은 많고 이를 위해 발전시켜야 할 담론, 설득해야 할 대중, 동원해야 할 자원들은 더 많습니다. ‘누구의 세계관이 옳으냐는 문제는 결국 한국 사회와 교회 안에서의 삶의 진정성과 신앙적, 사회적 설득력으로 나타날 것이다’고 하신 구교형 목사님 말씀처럼 더 진정성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저의 세 번째 질문은 과연 한국의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운동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운동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사실 더 많은 고민과 대화가 필요한 큰 질문입니다만, 백소영 교수님의 글에 이어서 간단하게나마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누구를 위한, 누구의 운동이었던지는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로잔 너머를 고민할 때 저 너머에는 누가 있는지, 누구를 위해 이것을 넘어가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8-90년대 한국 사회의 과제가 그러했듯이 87년형 복음주의(혹은 86형 복음주의)라 불리는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의 현장과 과제는 소위 민주화와 경제 정의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과제가 단순했기에 한국의 사회 선교 운동은 열악한 상황 하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대를 넘어서며 한국 사회의 문제가 다변화됨에 따라 사회 선교 운동의 전선과 현장도 다양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의 사회 선교 운동은 이렇게 다변화된 상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선교 운동은 미전도 종족을 위한,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을 위한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사

회 선교 운동은 누구를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할까요? 저는 기존에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던 이들, 교회에 의해 배척받고 소외된 현장이 사회 선교의 대상이자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한국 사회의 소수자들을 위해 충분히 의미 있는 사회 선교를 펼치고 총체적 복음을 실천해 왔습니까? 또한 소수자들은 사회 선교의 대상일 뿐 아니라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한국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 안에는 복음주의 동질 집단인들 외에 복음이 필요한 당사자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까?

현재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처한 여러 현실적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장 큰 위기는 운동의 당사자성과 교차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당사자 운동 없이 총체적 선교는 담보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장에 청년, 여성, 소수자가 없다는 이야기는 사실상 우리의 운동이 그들을 위한 운동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제국주의 선교 방식, 시혜적 선교 방식과 얼마나 다른 방향과 방법론을 갖고 있는지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복음주의자가 아니며, 복음주의자일 수 없겠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이 80년대의 운동으로 당사자성은 갖고 있었지만 2000년대 이후 운동으로 당사자성과 교차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대학시절 저의 신앙과 전통을 형성한 복음주의에 대한 존중과 감사는 있지만, 2023년을 현실을 살고 고민하는 저에게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은 유의미한 '저의 운동'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경제정의와 정치적 민주화, 절차적 공정 외에 그 이후의 담론에 대해(예를 들자면 여성, 성소수자, 도시화, 기후위기, 동물권 등)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 진영은 충분히 응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지 한국 복음주의의 문제만이 아니며 세계 로잔 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저에게 중요하고 절실한 의제는 기존 복음주의의 틀과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며, 로잔을 넘어서 WCC를 비롯한 다양한 그리스도교 전통의 흐름들과 대화할 뿐 아니라, 타종교나 무신론자들, 무엇보다 지금 교회의 관심에서부터 소외된 소수자들과도 충분히 대화하고 연대하는 신앙운동입니다. 그렇기에 사실 저에게 있어 '무엇을' 넘어설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로잔을 넘든 WCC를 넘든 무언가 넘어서고 싶은데, 과연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넘어설지가 저에게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귀한 두 분의 발제와 우리 모두의 고민이 단지 '로잔 운동' 혹은 '복음주의 사회 선교 운동'에 매이지 않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사람'을 향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